

재미작가 홍언의 몽유가사·시조에 나타난 작가의식

박 미 영*

〈국문초록〉

문학작품은 선행 작품 혹은 동시대의 다른 작품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창작되고 있다. 당대의 문단활동을 통해서나 작가 자신의 소양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선형적인 텍스트와의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해 작가의 의식에 적절한 반응양식이 선택하여 외부로 표현되는 것이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양식 또한 시대적, 개인적 필요성에 의하여 이런 과정을 속에서 되풀이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홍언은 미국 초기 이민자이며 재미 한인신문 『신한민보』의 발행에 오랜 기간 종사한 언론인이자 문인이다. 지면을 책임지고 있는 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작품을 비교적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국내문단과의 직접적인 교류나 활동은 없었고 미국 현지에서 함께 할 독자가 적은 가운데 詩歌만 400여 편을 발표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본 연구에서 홍언의 다양한 작품활동 가운데 1935년, 1947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되는 몽유양식을 활용한 시가, 몽유가사·몽유시조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고찰한다. 1935년과 1947년으로, 두 차례 『신한민보』의 〈詞藻〉란에 몽유가사와 몽유시조를 실는다. 홍언은 미국이라는 만리타국에 와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모두 포기할 만큼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였으며 항상 조국의 현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작된다.

* 천안대

첫 몽유시가는 1935년 4월 25일에 <이강산>을 필두로 1935년 5월 9일부터 1935년 7월 4일까지 동희슈부라는 자신의 필명으로 <꿈에 고국에 가서>라는 제목 하에 연작 시가 8편을 차례로 연재하는 것이다. 이는 개화 가사의 형식을 선택하고 있으며 향수와 1900년 전후의 조선 상황에서 정체된 역사의식을 담고 있어 중세적 이념을 노정하고 있다.

두 번째 몽유시가는 1947년 9월 25일 발표한 <나라와 고향>을 서시로 1947년 10월 2일부터 1947년 11월 6일까지 6 편을 연재하는 <꿈속에 강산>이다. 여기서 선택한 시형은 시조이며 그 시상의 전개가 1차 시도와 비슷하여 1차 시도를 의식하여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내용은 분단된 조국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 적대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외적 장애요인이 제거되었는 데도 고국에 가지 못하는 자신의 개인적 처지를 합리화하는 방어기제로서, 조국을 '살지 못할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몽유양식은 꿈을 주요 모티브로 사용하면서 현실의 좌절된 욕망을 달성하고자 의도적으로 취하는 양식이다. 홍언은 이민 후 일제치하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독립 후에는 개인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고국방문을 하지 못했다. 고국방문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홍언은 몽유양식을 활용하였다. 이는 중세의 지식인들이 우언의 한 양식으로 즐겨 사용했던 전통 양식이자 개화기 지식인들이 검열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다양한 글쓰기 방식의 일환으로 선택되어 문학사적 사명을 다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 홍언, 동해수부, 이민문학, 해외문학, 몽유, 시조, 가사, 몽유가사, 몽유시조, 기행, 대한민국민회, 신한민보

1. 머리말

본 연구는 재미작가인 홍언(洪焉:1880~1951)의 작품세계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홍언이 창작한 夢遊歌辭, 夢遊時調를 중심으로 이민지에

서 이뤄진 서정양식의 다양한 모색과 작가의식을 규명하여 문학사적인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홍언은 일제 강점기 동안 미국에서 활약한 작가이자 독립운동가이자 재미한인 신문 『신한민보(The New Korea Times)』를 이끈 언론인이다. 이 작가는 다양한 문학 갈래를 시험하면서 서정양식, 특히 시조를 주요 분야로 선택하게 된다.¹⁾ 그런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꿈 속에도 가보고 싶은 그리운 조국 산하를 방문하는 夢遊 詩歌의 창작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작가 홍언은 1880년 2월 27일에 태어났으며,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한창 접전 중이던 1951년 3월 25일에 미국 LA에서 타계하였다. 본인의 이력서에 의하면 경성 남부에서 태어나 자랐다. 22세인 1902년부터 타향살이를 시작하는데 1902년 中國으로 건너가 2년 동안 量地事務所에서 사무를 보는 한편, 1903년 間島의 한 私塾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1904년 귀국한다. 다음 해 1905년 넷째 형 홍경표와 더불어 초기 이민단에 합류하여 미국 하와이로 이민하여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게 된다. 초기부터 도산 안창호의 열렬한 추종자로서 활동하게 되고 1911년 경 『新韓民報』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된다. 도산 안창호의 주요 활동지를 따라 미국 서부인 샌프란시스코로 옮기게 되고 LA에서 생애를 마치게 된다.²⁾ 『신한민보』에서 주필 등 실질적인 실무자로 활동하게 되면서 그의 다양한 작품활동도 본격화된다.

이런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홍언의 원숙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학활동 가운데 의도적으로 실험한 夢遊 詩歌에 주목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신한민보』소재 문학작품의 연구가 진행되었고³⁾ 방선주가 『재미한인의 독립운동』에서 비교적 소상한 평전

1) 박미영(2002c), 「재미작가 홍언(洪焉:1880~1951)의 시조 형식 모색과정과 선택」, 『시조학논총』 18, 한국시조학회.

2) 자세한 연보는 박미영(2002c)의 논문 참조.

을 마련하여⁴⁾ 흥언 연구를 심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규익의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은⁵⁾ 1945년 이전의 자료를 정리하여 작품연구에 시야를 넓혀 놓았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2002년부터 흥언의 본격적인 작품연구가 이루어진다. 박미영의 「흥언의 시조에 나타난 해외유이민의 삶과 의식」에서⁶⁾ 흥언이 『신한민보』에 발표한 서정작품 전체 대한 조망과 문학사적인 의의를 규정하여 작품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박미영은 「재미작가 흥언(洪焉:1880~1951)의 시조 형식 모색과정과 선택」을⁷⁾ 통하여 흥언이 다양한 서정 양식의 시험을 통해 시조라는 특정 장르로 귀결되는 양식적 선택 과정과 흥언의 작가적 소양 등을 규명함으로써 작품 연구를 심화하였다. 물론 흥언이 이룩한 산문의 세계, 소설 및 여러 詞話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연구분야로 남겨두긴 하지만 흥언의 작품 세계의 규명에 단초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흥언이 의도적으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몽유시조 및 몽유시가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규호의 연구로부터 찾을 수 있다. 이규호

-
- 3) 강은해(1981), 「일제강점기 망명지문학과 지하문학」, 『서강어문』 3, 서강대.
정명숙(1987), 「한국개화기 해외유이민 시가 연구-〈신한민보를 중심으로〉」, 대구대 석사논문.
조동일(1994), 제3판 『한국문학통사』 4~5, 지식산업사.
문무학(1996), 「일제강점기 流移民 시조 연구 : 〈新韓民報〉를 중심으로」, 『대구어문론총』 14, 대구어문학회.
조규익(1999),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1, 월인.
박미영(2002a), 「〈신한민보〉소재 시가의 이민문학적 성격」, 『진리논단』 7, 천안대.
4) 방선주(1989),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5) 조규익(1999),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1~6, 월인.
6) 박미영(2002b), 「흥언의 시조에 나타난 해외 유이민의 삶과 의식」, 제33차 전국학술대회, 한국시조학회.
7) 박미영(2002c), 「재미작가 흥언(洪焉:1880~1951)의 시조 형식 모색과정과 선택」.

는 「몽유가사의 형성과정시고」에서⁸⁾ 몽유가사의 형식과 전개를 다루면서 몽유가사를 몽유모티브를 플롯의 기본 구조로 삼고 있는 시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몽유가사의 특징을 형식면에서 몽유록이 가진 입몽과 각몽의 과정이 나타나고 몽중 세계가 액자화되어 있다고 한다. 몽유록에서는 몽유자가 방관자, 참여자, 주인공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가사에서는 현실세계나 몽유세계나 모두 1인칭으로 서술됨을 밝혔다. 그 전개과정을 논의하였는데 1단계 꿈을 꾸었다는 하나, 몽중세계가 나타나지 않는 정도의 가사에서부터 마지막 4단계라고 할 수 있는 김홍기의 〈몽유가〉를 들고 있다. 이 〈몽유가〉는 지리적 역사적 범위가 크고 등장인물도 500여 명에 이르는 가사를 예로 꿈을 허구의 도구로 삼아 서사적이고 교술적인 내용을 유감없이 표출된다고 하였다. 전개가 진행될수록 표현되고 있는 몽중의 세계의 비중이 점점 커지며, 서정성이 거세되고 교술성, 서사성이 극대화된다고 하였다.

이어 이규호는 「몽유시조의 형성과정」에서⁹⁾ 몽유시조를 몽유의 모티브가 기본 구조이며 몽중 세계가 내부 액자를 이루고 있다고 하고 몽중세계는 〈상춘곡〉이 서술하고 있는 세계로 동일시하였다. 시조에 수용된 꿈의 유형을 꿈 소재가 드러내는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想思夢, 無常夢, 願望夢, 欽慕夢, 戀君夢, 思鄉夢, 慨世夢 7가지로 분류하여 꿈을 의인화하거나 소재로 삼아 다른 시조에 대해 논의하였다. 단순한 소재를 넘어서 꿈이 시가 전편을 지배하는 구조를 지닌 시조는 단행가사에 가까운 장형의 사설시조에서 나타나며 기행가사의 형태를 취한다고 하였다. 몽유시조의 존재가 가사 및 한시 등 여타의 몽유시가와 공존하면서 조선 후기 시조문학의 장르적 성향의 변화와, 동시에 시조·가사·소설

8) 李圭虎(1983), 「夢遊歌辭의 形成過程 試考」, 『국어국문학』 89, 국어국문학회.

9) 李圭虎(1985), 「夢遊時調의 形成過程」, 『人文藝術論叢 人文科學研究』 3, 대구대학교.

장르의 복합 및 전환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문학사적 의의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발판으로 몽유양식이 서사적 전통 양식으로 연구되면서 조선 후기에 이르러 모든 문학에 가능한 양식으로 제안되었으며 개화기에 중요한 경향을 이룩하였음에 주목하고¹⁰⁾ 이민 지인 미국에서 이뤄진 몽유시가의 문학사적인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작품은 1935년과 1947년으로 두 차례 『신한민보』의 〈詞藻〉 난에 수록된다.¹¹⁾ 홍언은 미국이라는 만리타국에 와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모두 포기할 만큼¹²⁾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였으며 항시 조국의 현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작된다. 첫 몽유시가는 1935년 5월 9일부터 1935년 7월 4일까지 동희 슈부라는 자신의 필명으로 〈꿈에 고국에 가서〉라는 제목 하에 연작 시가 8편을 차례로 연재하는 데서 볼 수 있다. 이에 바로 앞서 1935년 4월 25일에 〈이강산〉을 발표하는 데 〈꿈에 고국에 가서〉의 서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몽유시가는 1947년 10월 2일부터 1947년 11월 6일까지 6편을 연재하는 〈꿈속에 강산〉이다. 역시 작가 명은 홍언의 필명인 동희 슈부이며, 이에 한 주 앞서 1947년 9월 25일 발표한 〈나라와 고향〉을 서시이다. 그 시상의 전개가 비슷하여 1차 시도를 의식하여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 정확성(1977), 「몽유록의 역사의식과 유형적 특질」, 『관악어문연구』 2, 서울대 국문과.

서대석(1980),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학논집』 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정여울(2002), 「20세기 초 몽유양식의 담론적 특성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등

11) 『신한민보(1909~1973)』 1~28. 논문자료사 영인(1991). 앞으로 『신한민보』 인 용은 이 영인본을 이용한다.

12) 국가보훈처에서 1995년 독립훈장을 추서하였지만 지금까지 수령해가는 가족이 없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홍언이 시험한 몽유시가 양식을 통해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을 넘어서려는 의식을 규명한다. 먼저 가사 양식을 시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1차 시도를 통해 몽유 양식의 성격과 몽중세계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고찰하고 다음 장에서 2차 시도에서의 시조에 나타나는 몽유성을 검토하고 해외 이민자로서의 작가의식을 고찰한다. 홍언의 문학 양식 선택이 시조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시험한 몽유시가는 몽유양식의 범갈래양식화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몽중에서 국토산하의 명승지를 기행하는 것으로 몽중 세계가 설정되어 서정양식인 시조에까지 몽유 및 기행문학의 영역 확장이 이루어지는 의의가 있음을 규명한다.

2. 1차 시도 : 몽유가사의 활용과 향수 의식

2.1. 가사 형식의 시도

홍언이 몽유시가양식을 의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은 1935년 5월 9일부터 1935년 7월 4일까지 동희슈부라는 자신의 필명으로 <꿈에 고국에 가서>라는 제목 하에 연재하는 연작 시가 8편이다. 홍언은 20년대 다양한 형식의 서정 작품을 시험하다가 한동안 시가창작이 뜸해지고 다시 1935년 작품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35년 홍언은 뜸하던 詩作活動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시작하는데¹³⁾ 그 도화선이 1935년 4월 25일에 발표되는 <이강산>¹⁴⁾이다. 이 장에서는 홍언이 가사를 활용하여 시도한 몽유양식을 분석하고 이에 나타나는 작가의식을 고찰한다.

13) 박미영(2002c), 187면.

14) <이 강산> 『신한민보』. 1935.4.25. 1429호 : 앞으로 홍언의 작품 인용은 본문에 <이강산>(1935.4.25. 1429호)과 같은 식으로 표기한다.

먼저 서시격이라 할 수 있는 〈이강산〉을 살펴보자. 一, 二 두 수로 이뤄지는 작품의 一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一 두만강 백두산
그림의 이 강산

꿈 속의 이강산
네 사랑이 네로구나

네가 너를 위하
한 것이 무엇나나¹⁵⁾

여기에서 제목으로 제시한 이 강산은 두만강, 백두산의 그림으로 촉발되는 조국강산으로 홍언이 꿈 속에서 그려보는 사랑하는 조국이다. 이에 대해서는 홍언의 또다른 필명인 “츄선”으로 1945년 10월 18일부터 3회 연재하는 수필 〈그림속에 있는 한국강산〉의 첫 회(1945. 10.18. 1960호)에서 이 그림의 실체를 짐작할 수 있다. 내용에 의하면 일본지도에 만주와 한국을 분홍 칠을 하여 일본 영토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옛 지도를 걸어놓고 대한 자유국으로 보기에 그림 속에만 있는 한국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볼 때 홍언의 눈길 닿은 곳에 항상 고국의 지도가 걸려 있는 듯하다.

위에 인용한 시에 의하면 지도 속에 그림으로만 볼 수 있는 강산이면서 꿈에도 그리는 곳으로서의 조국을 위해 한 일이 무언인가 라고 하면서 “二”에서는 죽어도 살아도 이 강산 조국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호인 1935년 5월 9일부터 1935년 7월 4일까지 연작 작품 〈꿈에 고국에 가서〉으로 이어진다. 8편으로 나누어 수록되는 작품은 〈꿈에 고국

15) 조규익(1999),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3, 월인. 608면에서 “나나”로 읽었는데 영인본은 판독이 어려워 읽기는 힘드나 신문의 활판을 짜면서 오식이 된 것이 아니라면 홍언의 어휘사용례로 보아 “나나”로 읽기는 힘들다.

에 가서》라는 제목 하에 각 편마다 一, 二, 三의 장 번호가 매겨져 있다. 첫 작품이 시작할 때 “〈꿈에 고국에 가서〉 데一장”이라고 되어 있으며 두 번째 작품부터는 “〈꿈에 고국에 가서〉(속) 데二장”, “데三장, 데四장”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 처음 회에 이미 제목에 “데一장”이라 하여 여러 회 계속되게 됨을 예고한다. 즉 홍언이 이미 작품을 완성한 뒤에 나누어 연재하였거나 어느 정도 계획 하에 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문에 연재된 마지막 작품인 1935년 7월 4일 〈꿈에 고국에 가서〉의 “주희” 끝에 이어 “이시의 저작은 아직 ○○ 이다음 다시 계속”이라고 하여 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한다. 계속 이어지는 시는 없고 1935년 9월2일부터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미국의 기행길에 오르게 된다.¹⁶⁾

먼저 첫 편인 〈꿈에 고국에 가서〉 데一장(1935. 05. 09. 1431호)의 전문을 보자.

- | | | | |
|---|--|---|--|
| 一 | 더동강 건너가니
평양성 반갑고나
그러나 매일강산
풍경이 달라졌다 | 四 | 청루벽 물소리는
웨그리 고평한가
영명사 향로속에
연기도 슬어졌다 |
| 二 | 춘광이 한찌지만
잉화가 꽃이라니
잉화를 밟고가니
「일광」에 들어간 듯 | 五 | 밤 김흔 이 강산에
만상이 꿈 속인디
련광명 밝은 달이
은근히 빗치운다 |
| 三 | 이련당 부용화는
꽃 필 썩 아직 멀고
릉라도 연한 버들
힘업시 늘어졌네 | 六 | 밝은 달 품에 안고
김버서 도라보니
부벽루 자는 곶해
모란봉 소사잇소 |

16) 〈홍언씨 출촌〉(1935.09.05. 1448호)기사에 의하면 재미 중국인을 비롯하여 멕시코 등지의 화교들에게 文名이나 애국정신으로 유명한 홍언이 중국인들의 열렬한 초청으로 가주 즉 캘리포니아 일대를 순방하기로 하고 9월 2일 샌프란시스코를 떠났다고 한다.

위의 첫 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자인 홍언은 대동강을 건너 평양성을 방문하고 애련당, 능라도, 청류벽, 영명사, 연광정, 부벽루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고 있다. “데二장”이라고 하고 있는 두 번째에서는 신의주 압록강변, 이어서 세 번째는 황해도 장연에 있는 금사 모래밭의 아름다운 풍광과 몽금포 큰애기의 노래, 네 번째는 금강산의 만폭동, 유점사, 정양사를 지나면서 아름다운 풍광을, 제5장에서 제7장까지가 한양, 즉 서울을 차례로 읊어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노래에서는 개성을 노래하며 흥망의 감회를 읊고 있다.

홍언이 둘러보는 꿈속의 조국, 몽유세계는 기행의 틀을 갖추고 있다. 지도를 놓고 볼 때 평양에서 시작하여 위로 압록강변 의주의 통군정, 백두산, 그리고 황해도 장연을 거쳐 금강산으로 한양으로 하여 개성에 이르는 중북부 지방을 기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꿈에 고국에 가서>는 연작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수록하는 신문지면이라는 특성 때문에 홍언이 추억하는 지역별로 나누어 실었다고 보아 모두 합하면 한 편의 가사로도 볼 수 있다.

서시적인 <이강산>에서 꿈 속의 강산인 조국과 함께 죽겠다는 굳은 의지로 시작하며, <꿈에 고국에 가서>라는 제목에서 몽유양식을 채택한 시가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몽중의 세계는 작가가 홀로 국토산하를 기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행문과 동일한 시각을 갖는다. 기행문으로 볼 때 그 큰 범주의 여정에서나 각 지역내의 여정 또한 순차적이고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노정보다는 몽유양식이 지니는 공간과 시간의 자유로움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홍언은 기행의 틀을 활용하여 현실성을 확보하면서도 몽유양식의 고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실현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치로 꿈을 사용하고 있다. 홍언이 고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에서 꿈이라는 장치를 이용해 간절한 소망을 이루려 한다는 점

에서 몽유라는 양식적 특성을 활용한 시가로 성격을 규정지어 볼 수 있다.

즉 홍언의 〈꿈에 고국에 가서〉는 몽유형식을 빈 기행가사로 이규호가 가사가 몽유양식을 활용하여 그 완성도에 따라 분류한 4단계에 비취 보면 2단계인 꿈의 모티브가 가사의 전개 상 필요요소이며, 몽중세계도 나타나지만 허구성의 활용도가 낮은 것에 해당한다. 즉 3 단계에서 이뤄지는 이념적 만남이나 토의적인 면보다는 기행에서의 서경과 관찰, 감회 등을 표현하고 있어 서사성이나 교술성보다 서정성이 농후하며 몽유자가 몽중세계의 주인공이면서 몽중세계를 주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형식면에서 보면, 출발과 여정, 도착이라는 기행의 기본 구조를 채택하지 않고 각 장별로 해당 지역만을 따로 다루고 있다. 또한 1장, 2장이라는 장구분을 하고 있으며 각 장이 모두 一에서 六으로 분련되고 각 연은 다시 3·4조 4행의 정형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전통기행가사 형식이라기보다는 분장된 개화가사의 형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하겠다.

2.2. 추억 기행과 조국강산에의 향수

홍언은 〈꿈에 고국에 가서〉(속)〈테五장〉(1935. 06. 13. 1436호)에서 “三十年 지나간 후/이제야 돌아오니/우리빈윙클쳐름17)/시디에 락오라고”라고 읊고 있어 홍언이 1904년 미국에 이민간 이후 30년간 고국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가사 특히 분련된 개화가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각 지역은 눈에 그려지

17) 워싱턴 어빙(Washington Irving, 1783-1859)의 『스케치북(Sketch Book)』에 나오는 〈Rip Van Winkle〉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사냥갔다 별세계에서 술이 취해 자고 다음날 다시 돌아오니 20년이 지나 있었다고 한다.

는 풍광과 느끼는 감회를 현재형으로 서술하여 기행으로서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2장의 백마산성, 통군정에서는 임진전쟁을 회고하며, 현재 조선의 운명과 만주제국을 인식하고 서술하는 등 풍물 서술과 역사적 사실, 감회의 어우러짐이 기행문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도 개화 가사를 채택함과 동시에 기행적 교술성으로 표현되고 있음이 특징인데 이를 통해 작가가 표현하고 있는 몽유세계와 작가의 의식을 살펴본다.

기행에서의 중요한 요소인 서경과 풍물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자. 앞서 인용한 <데—장>이 가장 아름다운 봄 경치를 노래하고 있다. “제일 강산”을 내세우며 대동강 - 평양성 - 애련당 - 능라도 - 청류벽 - 영명사 - 연광정 - 부벽루 - 모란봉의 순으로 대동강변에 흠어져 있는 여러 명승고적을 방문하며 아름다운 풍광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몽유세계의 특징으로 밝은 달빛과 함께하는 고요하고 은은한 풍경을 그림처럼 그려내고 있다. 동명왕 무덤이라든지,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의 아들을 밀장군이 지켰다는 을밀대 등의 유적지와 고국의 흥망에 대한 감회보다는 눈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훑고 지나가는 기행적 요소가 강하다. 그런 속에서 평양성을 보는 순간 풍광이 달라졌다 하고 앵화가 핀 봄 풍경이 日光에 있다는 말로 일제 치하임을 암시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서경은 전편에서 이어지는데 일제 치하에 있는 아름다운 강산은 흥연의 추억속에서 애잔한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특히 <꿈에 고국에 가서>(속) <데三장>(1935. 05. 23. 1433호)에서 황해도 장연 해변의 풍광은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 一 쪽갯치 풀은 바다/눈갯치 하얀 모리/모리에 붉은 히당/여계가 명사십리
- 二 히빛이 빗칠 써는/황금이 깔녀잇고/명월이 입마초면/명지를 퍼노흔 듯
- 三 비단이 이려타면/한 폭을 가져다가/국괴를 만들고서/진쥬로 슈로리라

四 정 만은 우리 사람/히당화 우슴 속에/정인의 손을 잡고/춘광을 앗기더니
 五 풍범선 멀니 와서/모리를 실어가미/히당화 떠러지고/정인이 눈물인디
 六 몽금포 큰 익기만/원한을 물으난지/술단지 압헤 노코/노리가 「화니파람」

위에서 인용한 작품에는 긴 “주희”가 붙어 있어¹⁸⁾ 아름다운 명사십리 해안이 황해도 장면임을 알 수 있다. 펼쳐져 있는 모래밭은 비단같이 가져다가 국기를 만들고 싶다, 특히 진주로 수를 놓아 아름다운 국기를 만들고 싶다는 심경을 토로하며 모래를 파내는 일본의 수탈, 이런 상황에서 민족의 대책없음에 대해 비교적 거리를 두고 서술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은 당나라 말기의 시인인 두목(杜牧)의 〈泊秦淮:진회항구에 배를 대고〉 시 끝 두 구절을 생각하게 한다.¹⁹⁾

이어지는 서울의 풍경도 “一 활신 편 진달니와/연하게 풀은 버들/계터로 춘광인디/시세만 달라졌다”(〈데五장〉 1935.06.13. 1436호)와 같이 일제 치하에 있는 조국의 강산과 봄 풍경으로 묘사되며 향수를 자아내고 있다. 여기에 홍언은 음식으로도 조국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기도 한다. 서울의 양화도에서 잡히는 용어나 용산의 살진 도미,²⁰⁾ 그리고 개성에서의 편수장국²¹⁾ 등 외국에서 맛보지 못하는 음식에의 기억도 그려진다.

18) 주희 명사십리난 황해도 장면에 잇난 것이다. 그 풍경이 아름다움으로써 「명사십리 히당화야 뜻진다고 슬어마라」 민요가 잇난 것이 그 노리가 이상하야 히 빗이 빗치우면 금밭갓흔 고로 「금사」라고도 한다. 합병이후 원슈가 우리의 사랑하난 금사를 실어다가 류리를 제조한다. 몽금포난 금사 부근에 잇난 한 포구이다. 「화니파람」은 몽금포 식쥬가들이 보통 부르난 노리이다. 〈데三장〉(1935.05.23. 1433호)

19) 장사하는 여인은 나라가 망해 가는 한(恨)도 모르는 채, 商女不知亡國恨
 江 건너에서 오늘도 〈후정화〉 노래만 부르고 잇네. 隔江猶唱後庭花

20) 二 양화도 연한 용어/룡산의 살진 도미/우리의 명산인디/뉘 낚시 다 잡느냐?
 〈데七장〉 1935.06.27. 1438호)

21) 四 그 아리 만호장안/넙은 것 두루퓌이/잘 썰인 편수장국/니 나라 맛이로세
 〈데八장〉(1935.07.04. 1439호)

이렇게 서경과 감회를 묘사하는 가운데 흥언은 일제 치하에 있는 조국을 한번도 잊은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조선조 왕실에 대한 연민의 정과 원망으로 이어지는데 서울을 찾아가는 흥언은 <데六장>(1935.06.20. 1437호)는 경복궁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二 경회루 렴당으로/집옥지 돌아들어/란간을 의지하라/홀연이 심갓는 것
三 이곳에 티평턴자/성덕이 하늘갓히/씩은 썩 실어니고/비단을 끌고갓소

집옥재는 흥언이 주에서 명성황후가 시해된 곳이라고 하고²²⁾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른 곳보다 오래 머문 듯이 감회가 많다. 알려진 사실로는 집옥재는 경복궁 북쪽에 있는 건청궁 부속건물로 고종의 서재였고, 명성황후가 살해된 곳은 건청궁 옥호루로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여기서 왕실의 무책임함을 묻고 있다. 대한제국의 황제와 황후는 날탕패들을 불러 즐기며 떡을 하고 비단을 하사하는 연회에 몰두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래도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무덤이 있는 흥릉을 찾고 주변에 피어있는 梨花의 이슬을 왕의 눈물로 표현하며, 왕실의 잘못을 잊고 용서하려 한다. 그런가 하면 <데二장>(1935. 05. 16. 1432호) 의주 압록강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22) 주희 특산과 인왕산은 경복궁에 잇난 산일홈이요. 경회루 집옥지도 경복궁에 잇난(는?) 던각인데 집옥지란 을미 八月二十二日에 왜공사 삼포 오두가 명성황후를 칼노 찔너 죽이고 불에 티운 곳이다. 광무대 명성황후는 나라 망할 당시 국정을 다사리지 안코 다만 풍류 연락을 일삼아 썩을 썩을 수레로 실어너여 벌엿고 기승 광덕들에게 비단을 하사허미 그들이 님금의 은혜가 영광이라고 비단을 풀어 몸에다 감고 궁문 박그로 나왔다. 「대명던 디들보에/명마귀 거름으로」는 날탕패 노래이다. 흥는야 광무대와 명성황후를 봉안한 능소이다. 광무대와 명성황후는 실로 나라망한 죄가 잇지만은 데후가 다 외적에게 피살하얏 으미 우리난 그 원망을 닛고 그 원슈를 생각하는 것이다. <데六장>(1935.06.20. 1437호)

- 三 리여송 강을 건너/밍서를 하였지만/명량포 기선가난/거북선 도라왔소
- 四 림춘민 말삼더로/복벌로 하얏드면/가련한 우리 세자/송산에 가쳤스리!
- 五 한양의 슷흔 리화/장춘의 어린 란초/춘광이 씌갓흔 것/동경도 그러리라
- 六 압록강 걸친 다리/무지게 갓흔 곳에/잉화가 날라간들/얼마나 멀니가랴!

조선왕실이 임진전쟁의 위기 극복과 청나라에게 굴욕을 당한 사실을 상기하며, 심양에서의 불모살이를 한 소현세자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조선왕조의 국화인 梨花에 슬픔을 이입하여 조선이 슬픈 처지에 있음과 청나라의 국화인 蘭草로 어린 溥儀 황제의 운명을 묘사하고 있다. 또 櫻花로 표현된 일본의 침략이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데八장>(1935.07.04. 1439호)에서도 나라의 상징을 고려는 소나무, 조선은 이화로 표현하여²³⁾ 꽃과 나무의 시듬으로 나라의 흥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왕실과 국가의 흥망에 대한 밀착된 의식으로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한 왕실에 대해 원망을 잊고자 하며, 도리어 이를 위해 칼을 품는다.²⁴⁾ 그리고 금강산 정양사에서 만나는 중에게 사후의 극락세계보다는 지금 현재 조국을 위해 칼을 차기를 촉구한다.²⁵⁾ 홍언은 <데八장>에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홍언이 돌아오고 싶어하는 조국을 다음과 같이 개성에서 찾고 있다.

三 五뵈년 송악산이/구름에 썬엿지만/줄기찬 박연폭포/은하수 거울으며

23) 二 선죽이 벼을 적에/솔나무 썬거지고/혈죽이 돌을 썬에/리화가 썬러졌다 <데八장>(1935.07.04. 1439호)

24) 五 흥릉의 신작로에/봄풀이 옥어지니/인왕산 두견시도/울지를 안고나
六 이슬에 져진 리화/옥용의 눈물이라/원망을 다 닛고셔/방춘에 칼을 품어<데六장> 1935.06.20. 1437호)

25) 四 정양사 로승다려/다시금 못난 말이/살아서 나라 일코/죽어서 극락세계
五 룬희가 잇을 계면/너 나라 다시 와서/붓터를 잡지 말고/허리에 칼을 차면
<제四장> 1935.05.30. 1434호)

四 그 아리 만호장안/넙은 것 두루뎛이/잘 쓸인 편슈장국/너 나라 맛이로세
五 강산이 부서진 후/전국이 변혔는디/너 홀로 그디로는/고마워 하노미라
六 현희에 칼을 씻고/이녀가 시집가면/이곳에 다시 와서/산 아리 슈간초옥

이와 같이 홍언은 일본의 흔적이 없으며 홍언이 조국을 떠나기 전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개성에 가서 조국이 일본 치하에서 벗어나는 때에 조출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는 홍언이 조국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 옛모습 그대로인 조국에 돌아와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으로 아름다운 조국 강산을 눈물어린 시선과 그리움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좋은 것들을 새 주인, 일본인이 모두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은 어디에도 몸붙일 곳 없이 겨우 연명만을 하고 있는 정도로 그리움이 큰 만큼 일본에 대한 분노도 크다. 일본치하에 있는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며 떠올리는 조국의 모습은 조선 왕실로 대변된다. 이는 홍언이 1902년 이미 조선을 떠나 중국으로 떠돌아 다녔으며 1904년에 하와이 이민자 대열에 끼어 미국으로 이주하였던 사람으로 30년 전 떠날 당시의 조선에 대한 신하로서의 의식을 가진 조선인으로 볼 수 있다. 즉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가 체감하고 있는 조국에 대한 역사인식은 중세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3. 2차 시도 : 시조의 활용과 분단현실 인식

3.1. 시조 양식의 시도

홍언이 두 번째로 창작 발표한 몽유시가는 1947년 10월 2일부터 <詞藻>란에 <솜속에 강산>이란 제목으로 6회 연재된다. 각 회마다 단형시

조의 형식으로 창작되었는데 동일한 제목 아래 [1][2]와 같이 순서를 표시하여, 연작 시조를 나누어 게재했다고 하겠다. 홍언이 이 시조를 발표하던 1947년은 한국은 이미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여 꿈에도 그리던 조국을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일본의 패전으로 얻게 되었던 해방과 독립은 우리가 바라는 식은 아니었다. 남북을 갈라놓는 38선이라는 장벽을 만들었기에 도리어 민족을 속박하여 민족의 장래가 암담하기만 한 것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매불망 조국을 그리던 홍언에게 조국의 암담한 현실은 물론, 가난한 이민자로 조국에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더욱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1945년 조국이 독립되자 그해 가을, 미주한인대표 고국방문단이 결성된다. 그러나 홍언은 왕복여비와 숙박비를 마련할 수 없어 방문단에 참여하지 못하고, 꿈에도 그리던 고국땅을 밟아보지 못하게 된다. 본인은 그간의 독립운동과 『신한민보』발행의 주역으로서의 공로가 인정될 줄 알았지만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만이 참가하게 된 것이다.²⁶⁾ 이런 상황에서 <나라와 고향>(1947.9.25. 2056호)을 필두로 <꿈속에 강산>이 6회 연속 게재된다.

구체적인 몽유양식의 활용은 첫 번째 시조에서 잘 드러난다. <꿈속에 강산>이란 제목 하에 수록되는 시조의 첫 편<꿈속에 강산>[1](1947.10.02. 2057호)의 전문을 신문에 수록된 기사형식대로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26) 방선주(1989:294)에 의하면 1945년 가을 미주 한인대표 고국방문단을 조직하여 방문을 추진하는데 홍언은 자신의 독립운동경력이나 국민회 신문인 『신한민보』의 실질적인 발행자로서의 30년간 공로로 방문단에 참가하길 희망하였으나 여비와 숙박비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만 대상이 되어 홍언은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一]

조상이 정한강산
꿈속에 와서 보니



풍경은 갖것마는
강산이 다르구나



자손이 거긔서 살며
신세 처령 하오니

〈꿈속에 강산〉이라는 제목과 더불어 조국에 가보지 못하는 현실에서 꿈속에서나 조국에 왔다고 하는 구절에 의해 몽유양식을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수에는 강산을 절반 잘라서 또 국경이 생겨 강산이 남쪽·북쪽 양쪽에 국경을 두게 되어 갈 곳을 모르겠다고 한다. [三](1947.10.16. 2059호), [五](1947.10.23. 2060호)²⁷⁾에서는 덕수궁과 집옥재를 노래하고 있다. [三]에서 “덕수궁 넷대곶에 / 석조전 차저가 니”라고 하여 마치 실제적으로 기행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六]과 마지막으로 수록되는 [七]에서는 평양을 읊고 있다. [六]에서는 “대동강 제일강산”이라는 평양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말로 시작하며, 1945년 9월 21일 평양에 입성한 김일성을 성지인 서궁에서 흉악한 화성을 섬기는 창귀라고 한다. [七]에서는 영명사와 능라도를 언급하면서 그 속의 중과 나라 처지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몽유하고 있는 세계가 기행인 것처럼 보이는 구절은 [一]과 [三], [七]의 “영명사를 지나다가”에서 나타나고 있어 꿈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기행이라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행문의 기본인 출발-여정-도착의 구조나 실제 여정이 표현되고 있지 않으며, 풍물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여행지에 대한 강한 인상을 담아내고 있어 서정적 요소

27) 신문 수록 순서 상으로 보면 [五]는 [四]의 잘못이다.

가 강하다.

6회 연재된 시조는 분단현실을 노래하는 첫 부분과 <꿈에 고국에 가서>의 <데—장>의 평양부분에 그치고 있지만 앞서 1차에서 시도한 <꿈에 고국에 가서>에서 사용한 어휘나 이미지를 선행 텍스트로 하여 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제목이나 서시격인 작품을 먼저 앞세운 것, 시상의 전개방식은 홍언 자신이 먼저 이룩한 <꿈에 고국에 가서>가 전제되어 창작되었다 하겠다.

여기서 이규호가 「몽유시조의 형성과정」에서²⁸⁾ 설정한 몽유시조의 문제와 연관지어 살펴보자. 이규호는 몽유의 모티브가 기본 구조이며 몽중 세계가 내부 액자를 이루고 있다고 하고 다음 시조를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았다.

소년형락이 다 진커늘 와유강산 호오리라
 인호상이 즈작으로 명명케 취헌 후에
 한단침 도도 베고 장유호덤이 잠간 되여 방춘화류 츠즈가니
 리화도화영산홍 좌산홍 왜철죽 진달화 가온디
 풍류량이 되여 춤추며 노니다가
 세류영 넘어 가니 황도편편환우성이라
 도시형락이 인싱귀불귀 아닐진던
 꿈인지 상신지 몰나 다시 김소년 호오리라(1650)²⁹⁾

이 시조에서는 莊子의 호접몽에 의거하여 봄을 즐기는 것으로 입몽 과정과 몽유세계, 각몽과정이 뚜렷하다 하고 몽유세계만 분리하여 본다. 면 <상춘곡>이 서술하고 있는 세계와 동일하다고 하였다. 즉 <상춘곡>의 세계는 서정성이 짙은 서정적 교술로서의 갈래를 설정할 수 있는데

28) 李圭虎(1985), 「夢遊時調의 形成過程」, 『人文藝術論叢 人文科學研究』 3, 대구대학교.

29) 심재완(1972), 『교본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수록번호임.

위의 사설시조는 서정으로서 교술성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규호는 몽유시조의 몽중 세계가 위와 같이 가사와 유사함을 지적하고 특히 다음 金壽長 시조는 〈玉樓宴歌〉의 내용을 압축한 듯하다고 한다.

꿈에 謫仙을 만나 岳陽樓에 올라간이
 高朋이 萬座호디 杜牧 蘇子瞻과 魯眞君 呂洞賓과 劉伯倫
 白樂天和 崔孤雲 賈壽富에 一隊群仙 모닷는디
 美酒는 盈樽하고 肴核는 滿盤이라
 女班을 도라보니 月宮 姮娥 洛浦仙과 李夫人 趙飛燕과 絶對 佳人 다 왓는디
 香臭는 擁鼻호고 珮玉이 鳴浪이라
 徐氏의 韻和瑟과 王子晋의 鳳簫聲과 宋玉의 玉洞簫요
 石蓮士의 거문고에 郭處士의 竹杖鼓와 楊太眞의 羽衣舞요
 蔡文姬의 胡歌聲과 張定元의 採蓮曲과 秦靑의 긴 노리코다
 酒半에 醉興을 못 이기여 不知何處 吊湘君을 太白이 읊허니니
 吳楚東南日夜浮는 杜甫의 和答이요 朗吟飛過洞庭湖는 呂洞賓의 仙語로다
 洞庭月落孤雲歸는 崔孤雲의 絶作이로다
 우리의 仙分이 엇덧든지 夢에 求景 호패라(337)

이는 장편가사 〈옥루연가〉 가운데 仙隱에 관한 대목에 의거하여 시조화한 듯하여 가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시조가 성립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조선후기 활발했던 시조, 가사간의 交互現象의 증거라고³⁰⁾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입몽-몽중세계-각몽의 구조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는 〈구운몽〉 등 서사적 혹은 교술적인 갈래의 영향하에 이뤄졌으며, 보통 단형시조의 경우는 꿈이 소재로 작용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규호의 논의나 조선후기에 함께 보이는 몽유양식의 활용에서 시조와 가사 중 어느 쪽이 어느 쪽에 영향을 주었는지 선후관계는 밝힐 수 없으나 영향관계에 있음은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흥언의 몽유시조라고 할 수 있는 시조의 경우는 흥언이 1차적으로 시도

30) 이규호(1985), 91면.

했던 가사형식의 〈꿈에 고국에 가서〉가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망명지 혹은 이민지에서 일제치하의 고국에 가지 못하고 지도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운 조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욕망을 꿈으로 이루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일제치하라는 장애물이 없어졌으나 또 다른 장애 요소인 경제문제로 인하여 유사한 상황에 대면하자 즉 좌절된 현실 욕망을 해결하려는 돌파구로서 자신의 의식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몽유양식을 자연스럽게 채택할 수 있고 이미 한번 시도했던 선행 텍스트의 자기 복제 속에서 또 다른 갈래인 시조를 시험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서정양식인 시조에서는 교술적 성격의 기행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좌절된 욕망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담아 내고 있다. 결국 홍언은 이런 한계 속에서 1차적으로 시도했던 가사를 선행 텍스트로 하여 시조로 재연해내려던 의도를 포기하며, 6편에 그치고 만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2. 분단 현실과 이민자로서의 실향 인식

2차로 시도되는 몽유양식은 시조라는 갈래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조국, 몽중의 세계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달라진다. 1945년 독립 이후 1935년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데도 작가에게는 여전히 고국 방문이 좌절된다. 정치적인, 모든 외적 장애가 제거되어 고국에 갈 수는 있는 데도 작가 개인의 경제적인 이유로 못 가는 상황에서³¹⁾ 꿈 속에서 서나마 둘러보게 되는 고국 산하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이는 미국이라는 먼 이국 땅에서 일제치하라는 제약성 때문에 갈 수 없는 조국을 그리는 때와 자유로이 조국을 갈 수 있지만 이민지 미국 땅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달라지는 이민자로서의 의

31) 주 26) 참조.

식을 규명해볼 수 있다. 고국에 대한 생각은 서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와 고향>(1947.09.25. 2056호)에 집약되고 있다.

나라이 잇것마는 / 나라가 안이라고
고향이 잇것마는 / 고향이 안이로다
나라와 고향이 잇고 / 엮는것과 갓흐니

이제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되었지만 나라나 고향에 갈 수 없기에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는 失郷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꿈속에 강산> 첫 수에서는 조국 방문이 좌절된 현실에서 꿈에나 가보지만, 도리어 조국의 분단된 상황에서 살고 있는 자손들이 처량하게 보인다고 한다. 앞서 1935년에 썼던 <꿈에 고국에 가서>와 비교할 때 조국에 대한 인식이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움 가득한 향수로 고국산천을 묘사하고, 돌아가 미래를 의탁할 수 있는 희망이자 이상향으로서의 조국은 더 이상 아니다. 고국의 동포는 동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조국에 대한 인식은 바로 다음 작품인 <꿈속에 강산>[二](1947.10.09. 2058호)에 나타난다.

[二] 남에도 국경이오 / 북에도 국경이오
강산을 절반 잘라 / 중간이 국경이니
어데로 가나 국경은 / 갈곳업다 하노라

독립된 한국은 다시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민족의 미래는 암담한 상황이다. 분단된 조국의 상황은 두 수가 이어 연재되는데 전문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三] 덕수궁 넷대궐에 / 석조전 차져가니
의관이 이상하고 / 말소리 다르고나
창성은 부르짖건만 / 못들은체 하나니

[五] 집옥지 뿌린피는 / 흰 곰이 오련다요
붉은 곰 오는 썩에 / 강산이 끈어지니
구천에 잠든 원혼이 / 놀라 쫓가 하노라

남쪽의 상황은 위에서 인용한 〈꿈속에 강산〉[三](1947.10.16. 2059호)에서 담았다. 덕수궁은 당시 미군정청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덕수궁 석조전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의복과 말소리가 다른 미국인이다. 다음의 〈꿈속에 강산〉[五](1947.10.23. 2060호)에서는 집옥재에서 흘린 피, 즉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의미하는데 조선은 러시아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俄館播遷을 단행하기도 했던 것이다.³²⁾ 그러나 러시아의 등장은 결국 강산을 반으로 나누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왕실에서 뿌린 피에도 불구하고 붉은 곰인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강산이 분단되었다고 한다. 아직도 왕실의 비운에 대한 회고와 왕실의 입장에서 노래하여 홍언의 의식에는 왕실의 비운과 조국의 운명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어, 세상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체된 역사인식을 드러낸다 하겠다.

〈꿈속에 강산〉[六](1947.10.30. 2061호)은 예전에 1차시도의 가사에서는 평양성을 도라보면서 언급하지 않았던 서궁을 언급하고 있다. 서궁은 안학궁에 있는 궁으로, 안학궁이 있는 대성산은 전체가 고구려 유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여서 고구려의 정신 혹은 기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 시조를 보자.

[六] 대동강 제—강산 / 서궁은 성디어늘
흉악한 저 화상을 / 왜 갖다 걸었느냐
창귀가 절을 하면서 / 상전갓치 생기니

32) 이민원(1994), 「아관파천 전후의 한로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이는 소련군 진주에 따라 스탈린의 초상을 “흉악한 화상”으로 표현하며, 이를 상전 같이 섬기는 자는 1945년 평양으로 와서 여러 요직을 거쳐 1947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김일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 태도는 [七]“릉라도 바라보더니 / 「감중련, 만33) 하더라”고 한다. 즉 아무말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있음을 한탄스럽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꿈속에 강산〉은 더 이상 연재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홍언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소련을 인식하는 태도는 사뭇 다르다. 한국은 이제 갈 수 있게 되었는데도 홍언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가난한 이민자일 뿐이라는 현실은 그의 귀국·귀향이라는 염원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홍언에게 있어서 조국은 더 이상 마음에 담아 들 이상향이 아니다. 〈꿈속에 강산〉[1]에 의하면³⁴⁾ 홍언의 “꿈속에 강산”은 이제 달라졌으며, 거기에 사는 자손의 신세는 처량할 뿐이다. 이렇게 고국에 사는 자손이 처량하고 고통을 받는다면 오히려 미국에 사는 자신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의식이 내재되고 있다 하겠다. 모든 상황은 자유로우나 오직 스스로의 제약상황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없게 된 홍언은 “신포도와 여우”라는 자기 합리화 방어기제를 작동하고 있다고 하겠다.

33) 감괘(坎卦)를 부르는 말로 이름이다. 물을 상징하여 7감수(坎水)이라고 통칭하고 고유숫자는 6이다. 〈설괘전(說卦傳)〉에 의하면 정북(正北) 괘로 물이 쉬지 않고 흘러 수고한다고 하는 것이며 겨울을 뜻하니 만물의 활동이 중지되고 감추어지게 되는 바 고생스럽다고 한다. 부처가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끝을 이어 둥글게 한 수인을 말하기도 하는데 접잡은 체하거나 말이 없음을 뜻한다.

34) 조상이 정한강산/ 꿈속에 와서 보니
 풍경은 갖것마는 / 강산이 다르거나
 자손이 거기서 살며 / 신세 처령 하오니〈꿈속에 강산〉 [一] (1947.10.02. 2057호)

이에 한반도를 분단 점령하는 미국과 소련에 대한 태도도 다르다. <꿈 속에 강산>[3]에 나타난 미국은 의관과 말이 한국과 다르다고 하여 차별성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한국 국민들의 소리를 “못들은체”하는 미국의 냉담함을 지적할 뿐이다. 미국은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에 대해 일찍부터 냉담한 태도를 취한 냉담한 태도를 취했으며, 일찍부터 신탁 통치안에 반대해왔던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³⁵⁾ 이에 대해 일반적인 인식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북쪽 상황에 대해서는 [5]와 [6] 두 수를 이어 언급하고 있다. 모두 6수에 지나지 않은 시의 양에서 볼 때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다 하겠다. 내용 또한 과격하고 비판적이다. [3]에서는 명성황후의 시해 등 왕실의 비운과 靚露의 결과가 붉은 꿈, 러시아가 한반도에 와서 해를 끼치도록 한 것이었는가, 죽었던 원혼들이 깨어날 정도로 놀날 일이라고 한다. 또 [6]에서는 민족의 정기가 어린 평양에 걸려 있는 화상과 이에 봉사하는 창귀라고 스탈린 초상과 김일성을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 몽유양식의 시조화와 문학사적 의의

문학작품은 선행 작품 혹은 동시대의 다른 작품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창작되고 있다. 당대의 문단활동을 통해서나 작가 자신의 소양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선형적인 텍스트와의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해 작가의 의식에 적절한 반응양식이 선택하여 외부로 표현되는 것이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양식 또한 시대적, 개인적 필요성에 의하여 이런 과정

35) 이호재(1982), 「이차대전 중 한국인의 대외인식과 주장-신한민보의 내용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8, 고려대 아세문제연구소, 4~11면.

을 속에서 되풀이된다.

지금까지 분석한 흥언의 몽유양식을 활용한 시가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신해진에 의하면³⁶⁾ “몽유록은 특정한 상황과 계기에 의해 파생된 문제의식을 꿈속에 가탁하여 허구적으로 창출된 것으로서 ‘작가의 분명한 의도’가 게재해 있는 양식”이라고 한다. 즉 꿈을 주요 모티브로 사용하면서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시간과 공간의 초월 수단으로 몽유양식이 채택되는 것이다.

흥언의 경우는 이른 시기에 이민을 떠났고 또 만주나 중국같이 조국과 가까운 곳도 아닌 머나먼 미국 땅에서 고국에 대한 향수와 고국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강렬하였을 것이다. 이런 흥언이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를 보내는 동안 고국 방문을 방해하는 초기의 제약적 요소는 일제 강점기하에서 정치적 망명이라는 것이며, 해방 후에는 정치라는 외부적 장애요소는 사라졌지만 본인 스스로의 경제적인 문제, 처지가 강력한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고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좌절된 현실 욕망을 해결하려는 돌파구로서 내재되어 있는 문학적 의장 가운데 몽유양식을 자연스럽게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또다시 유사한 상황과 대면하자 한번 시도했던 선행 텍스트의 자기 복제 속에서 가사·시조라는 다양한 양식 시험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흥언이 창작한 <꿈에 고국에 가서>나 <꿈속에 강산>이 현실세계에서 좌절된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꿈이라는 양식을 사용한 점에서 몽유가사, 몽유시조라는 용어로 범주화할 수 있다. 입몽-몽유세계-각몽 등의 몽유 양식의 구조 가운데 비교적 입몽과정³⁷⁾이 뚜렷하고 몽유세계가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몽유세계는 이규호가 논의한 마지막 단계의 가사에서 보였던 것처럼 기행과 결

36) 신해진(1998), 『조선중기 몽유록의 연구』, 박이정, 13면.

부된 형태로 나타난다.

홍언이 그리고 있는 몽유의 세계는 현실과 갈등을 일으키는 곳이기 보다는 오히려 실재하고 있는 세계이다. 이 세계는 홍언의 인식에 따라 재구성되기는 했지만 실재 세계를 거닐어 보는 기행문의 교술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행문의 교술적 성격은 첫 번째 시도인 개화가사 류에 강하게 나타나는데, 몽유록과 가사의 넓나듬은 교술이라는 갈래 범주가 동일한 데에서 비롯된다고 보겠다.

2차에 시도했던 시조형식의 경우, 이규호의 논의에 의하면 몽유시조라 지칭할 수 있는 것에는 가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였다. 홍언이 시도하는 몽유양식의 활용은 먼저 가사 형식을, 나중에는 가사에 의거한 시조 형식으로 가사의 시조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시조에서는 기행적 성격보다 욕망의 좌절에 대한 자아의 정서적 반응에 치중함으로써 교술성보다는 서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가사의 이미지를 시조로 재창작하는 데에 한계를 노정하기에 도중에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서정이라는 하위갈래 범주로 표현하기 힘든 몽유양식으로 자아의 좌절된 욕망을 인식하고 형상화하기에 첫 시도에서 표현했던 기행과 같은 교술성으로 더 이상 노래 할 수 없다. 이민지의 고립된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양식을 시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소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시조 양식으로 귀결되었다 하겠다.

홍언이 창작한 몽유시가의 몽중세계는 한국의 당대 상황으로 실제의 한국현실과 작자인 홍언이 인식한 현실로 갈등의 진폭은 어느 정도 커진다. 즉 몽유 주체의 현실과의 대립관계는 몽유세계의 설정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몽유세계의 구조는 현실세계 문제의 미래적 비전에 대한 작가의 세계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즉 현실과 대립관계를

갖는 몽자의 현실적 모순에 대한 태도, 현실적 모순의 강도와 그것의 역사적 보편성 여하, 거기에 따르는 미래에의 전망에 따라 몽중세계의 구조가 결정되는 것이다.³⁷⁾ 따라서 홍언에게 꿈 속에 거닐어 보는 조국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홍언은 일제치하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이민지에서 그려내는 조국은 내면의 기억을 반추하는 강한 추억으로 표현되며, 추억 속에 존재하는 유토피아의 세계로 미래의 희망이 된다. 따라서 내면화된 조국에의 기억은 모든 것이 미화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조차 용서하는 반응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의 역사인식 또한 복고적 독립 등에 대한 현실 개조 의지가 희박하다. 특히 집옥재를 통한 비운의 명성황후를 생각 왕실의 비운에 대한 강한 정서를 표출은 대한제국시기 이민한 초기 이민자로서의 정체된 사고를 보여 주고 있는 중세인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이는 조국의 일제 치하라는 현실 내부에 있는 실천자로서의 비판적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외부자로서의 인식으로 몽중세계를 자기의 내면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으로 서정적인 면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따라서 2차에 시도되는 시조양식에서 드러내는 작가의식은 겉으로는 분단된 조국에 대한 투철한 현실인식으로 위장된다. 그러나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민자의 조국에 대한 저항의식 혹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실계에 직면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몽유자에게 이입시켜 몽유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거나 자아성찰의 한 방법으로 이용한 우언의 형태인 몽유록이 1900년 전후 개화시기에 다시 사용하게 되

37) 박일용(1980), 「개화기 서사문학의 일연구 -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몽유록·우화·시론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5,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54면.

는 의의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지적하였다. 조동일은 『한국문학통사』에서 “사실을 알리고 주장할 것을 주장하면서 기사나 논설에 으레 부과되는 제약을 따르지 않고 흥미를 가중시켜 표현효과를 높이기 위한 필요³⁸⁾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윤명구는 개화기 몽유양식의 채택은 광무신문지법(1907)이라는 검열장치를 피하기 위한 의장으로,³⁹⁾ 정여울은 계몽적 지식인들의 다양한 글쓰기 방식의 실험 속에서 몽유양식의 채택되었다고⁴⁰⁾ 밝혔다.

이와 같이 국내 문단에서 개화기 몽유양식의 부활을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면 홍언의 경우 또한 같은 의의를 부여해 볼 수 있다. 국내와 고립된 상황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문학적 토양 속에서 자신의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다양한 문학 갈래를 시험한 사람이 홍언이다. 국내의 개화기와 유사한 상황의 발생으로 현실적으로 좌절된 욕망을 표현하는 방식과 강렬한 글쓰기 방식의 실험욕구가 만난 현장이 바로 홍언의 몽유시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홍언이 채택한 최종양식이 시조임에는 1926년 이후 고시조를 부흥하려고 노력했던 국민문학론자들의 노력 속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이들은 민족시형 수립을 위해 전통을 계승하고자 가장 시조다운 형식, 시조의 기본형을 찾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정형성의 고착은 창작에 오히려 한계로 지적될⁴¹⁾ 수 있었기 때문에 시조를 부흥하자고 하는 민족문학론자 내부에서도 혁신론이 만만찮게 일어났다. 특히 형식면에서, 손

38) 조동일(1994), 『한국문학통사』 4, 326면.

39) 윤명구(1986), 『개화기소설의 이해』, 인하대 출판부, 30~55면.

40) 정여울(2002), 「20세기 초 몽유양식의 담론적 특성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3면.

41) 조남현(1998), 「개화기 시조의 형식과 의식」:박노준·이창민 외, 『현대시의 전통과 창조』, 열화당, 60면.

안지영(1999), 「1920년대 시조론의 고시조관」, 『시조학논총』 15, 한국시조학회, 159~166면.

진태는 「반다시 古形을 固執함은 退步」라⁴²⁾ 하면서 단형시조만이 아닌 장형시조 형식도 이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1932년 이병기의 「시조를 혁신하자」⁴³⁾나 이은상의 「시조창작문제」⁴⁴⁾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이은상은 『노산시조집』에서⁴⁵⁾ 창작하여 보인 양장시조를, 이병기는 연작시조를 제안하여 내용의 혁신과 더불어 다양한 현대적 시조 형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문단에서 시도하는 시조의 다양한 양식적 시험에 주목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소양에 맞는 작품을 스스로 시험하였던 것 같다.

위에서와 같이 홍언이 창작한 몽유시가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홍언이 창작한 몽유시가는 공교롭게도 두 차례 모두 바로 이어지는 미국을 기행하면서 지은 시가와 함께 짝을 이루고 있다. 즉 첫 번째 몽유시가 발표 후 바로 1936년부터 오레곤, 아리조나 등 미국 서남부지역에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대 여행길에 오르면서 <솜속에 고국에 가셔>와 같은 형식의 기행시가의 창작과 발표가 이뤄진다. 이에 다시 1947년 <나라와 고향>을 서시로 <솜속에 강산> 6편을 연재에 이어, 1949년 죽음을 앞두고 <가주기행>이라는 제목 아래 11편의 캘리포니아 기행시조를 발표한다.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시기나, 조국을 그리 는 몽유시가에 뒤이어 미국 직접 기행하면서 지은 시가를 발표하는 순서 등으로 보아 홍언의 시가 창작에는 동기와 의도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홍언의 이미지로서의 자아 정체성 또는 현실인식을 규명하는데에 홍언이 생활하고 있었던 현장, 미국을 기행하며 노래하는 기행시 즉 觀遊詩와 함께 분석해야 할 후속 과제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42) 손진태(1927.3), 「반다시 古形을 固執함은 退步」, 『신민』 23 3/3.

43) 이병기(1932), 「시조를 혁신하자」, 《동아일보》 1932.1.23.~1.31.

44) 이은상(1932), 「시조창작문제」, 《동아일보》, 1932.3.30.~4.10.

45) 이은상(1932), 『노산시조집(鷲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이은상(1931), 『노산시조집』: 『현대시사자료집성』, 태학사 영인.

<참고문헌>

A. 자료

- 『신한민보』 1~6, 아세아문화사 영인(1981).
 『신한민보(1909~1973)』 1~28, 논문자료사 영인(1991).
 『신한민보』 MF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UCLA 대학 소장 MF사본)
 심재완(1972), 『교본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조규익(1999),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2~6, 월인.
 임선묵(1981), 『근대시조대전』, 흥성사.
 『한국현대시이론자료집』 1~10, 한국학진흥원 영인(1986).

B. 논저

- 김학동 외 공저(1979), 『한미문화의 교류』,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문무학(1996), 「일제강점기 流移民 시조 연구:〈新韓民報〉를 중심으로」, 『대구어문
 론총』 14, 대구어문학회.
 미주 크리스찬 문학가 협회(1992), 『이민문학』, 대한기독교서회.
 박미영(1994), 「본문분석에 의한 역대시가론의 시조관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설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2002a), 「〈신한민보〉소재 시가의 이민문학적 성격」, 『진리논단』 7, 천안대.
 ——(2002b), 「홍언의 시조에 나타난 해외유이민의 삶과 의식」, 제33차 전국학술
 대회, 한국시조학회.
 ——(2002c), 「재미작가 홍언(洪焉:1880~1951)의 시조 형식 모색과정과 선택」,
 『시조학논총』18, 한국시조학회.
 박일용(1980), 「개화기 서사문학의 일연구 -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몽
 유록·우화·시론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5,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방선주(1989),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서대석(1980),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학논집』 3, 계명대학
 교 한국학연구소.
 신재홍(1992), 「몽유양식의 소설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신해진(1998), 『조선중기 몽유록의 연구』, 박이정.
 유종국(1987), 「몽유록의 꿈 수용과 그 수사적 가치」, 『한국언어문학』 25, 한국언어
 문학회.
 이규호(1983), 「夢遊歌辭의 形成過程 試考」, 『국어국문학』 89, 국어국문학회.
 이규호(1985), 「夢遊時調의 形成過程」, 『人文藝術論叢 人文科學研究』 3,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예술평화연구소.

- 이민원(1994), 「아관파천 전후의 한로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 이은숙(2004),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에 나타난 교향의식과 그 지리적 의미」, 『문화역사지리』, 1614.
- 이호재(1982), 「二次大戰 중 韓國人の 對外認識과 主張:〈新韓民報〉의 내용을 중심으로」, 『亞細亞研究』 68, 고려대 아세아문화연구소.
- 장덕순(1963), 「몽유록소고」, 『국문학통론』, 신구문화사.
- 정명숙(1987), 「한국개화기 해외유이민 시가 연구-〈신한민보를 중심으로〉」, 대구대 석사논문.
- 정여울(2002), 「20세기 초 몽유양식의 담론적 특성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정학성(1977), 「몽유록의 역사의식과 유형적 특질」, 『관악어문연구』 2, 서울대 국문과.
- 조규익(1999),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1, 월인.
- 조동일(1991),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 (1992), 『한국문학의 갈래이론』, 집문당.
- (1994), 제3판 『한국문학통사』 3~5, 지식산업사.
- 현, 존 K. (John K. Hyun) Condensed history of the Kungminhoe: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1903-1945) : 홍성걸 역(1986), 『國民會略史: 하와이 國民會의 成立과 活躍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 현태리 저, 김순식 역(1991), 『번역과 한국근대문학』, 시와시학사.

<Abstract>

A Study on Korean-American Writer Hong-Eun(1880~1951)
focusing on Mong-yu siga(Traditional Korean Poetry, gasa
and sijo of strolling in the dream)

Park Mi-Young

This study is an exploration of a Korean-American writer, Hong-Eun's Mong-yu siga. Hong-Eun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lonial rule of the Japanese government. He was a publisher of *The New Korea Times*, and contributed various literary works to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is two Mong-yu sigas published in 1935 and 1947 and elucidate their meanings.

Using dream as a primary motif, the intention of Mong-yu mode is to achieve desire which is impossible to reach in reality. While his staying in the United States, Hong-Eun could not return his home country for two reasons, that is, political and financial ones. To return Korea desperately, he wrote sigas by adopting Mong-yu mode.

His first attempt was reflected as eight pieces of consecutive poetries titled *This Mountain In My Dream*, I am Home. *This Mountain* was published on the 25th of April, 1935 and *In My Dream*, I am Home was contributed from May the 9th of 1935 to July the fourth of the same year. These works were published in the *The New Korea Times*' poetry column under the pen name of Donghae-soboo (Sailor of The East Sea). Representing gasa of the enlightenment era, this poetry depicts historical identity of Chosun dynasty, especially focusing on before and after the 1900s. As a result of it, the poetry sketches the ideology of the Middle Ages.

His second attempt was *A Country and Hometown* written as a form of prelude on the 25th of September, 1947. In addition, *A Country in My Dream* was published as a form of six pieces of consecutive poetry from October the second to November the sixth of 1947. He chose sijo as a major form of poetry, and the image of the poetry seemed to be the continuation of his first attempt. Confronting the reality of the his own country which is divided, the writer expresses

his antagonism toward America and Russia. Although he could eventually return his country later, he rationalized himself by saying that his it is not the ideal place to go.

Mong-yu mode is a traditional poetic technique which the intellectuals of the Middle Age used to use as one pattern of allegory. In addition to this, in the period of the enlightenment of Korea, Mong-yu was used to avoid the Japanese censorship and experiment on the diverse ways of writing. In terms of literary history, the significance of Hong-Eun's creation of Mong-yu sigas is that Hong-Eun shares the same intention with Korean intellectuals of the enlightenment period.

Keywords : Hong-Eun, Donghae-subu(Sailor of the East Sea), Korean Immigrant Literature, Mong-yu(Stroll in Dream) sijo, gasa, sijo of stroll in dream, gasa of stroll in dream, travel, Sinhan-minbo (The New Korea Times), Daehaninkukminhoe(Korean National Association)

논문투고일 : 2004년 5월 3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7월 7일